어느덧 6 월도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빨라져서 뒤돌아보면 한달이, 또 돌아보면 2 달이 소리 없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던 시절도 이제는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공부하며 제과 제빵을 만들어서 계속하여 노인들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기특하지요. 만두도 피자도 과자도 여러가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윗동네 소식은 좀 힘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건강을 많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의원에 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지혜롭게 치료를 해 주셔서 기침이 80%는 떨어진 것 같아요. 계속하여 침 맞고, 한약을 먹고 일주일 2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기침이 많이 안 하게 되어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 달 정도는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엄청 바쁜 생활들을 감당하며 모든 일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요. 저희 모든 식구들도 다들 바쁘게 현지와 이곳을 오가며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ㅅㅈ 동산의 일들도 계속하여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강사님들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원장님 건강을 위해서 ㄱㄷ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정말 공기도 좋고 새로 지은 건물은 정말 좋습니다. 한 번씩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되어 숲이 우거지고 냇물도 계속하여 흘러 나가고 있어서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은 힘을 다해 잘 감당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삘릴리 삘릴리 소리를 울립니다. 6.2025 – 이전세/옥소리 드림